

“도자문화관 기반,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 원년 선언”

병오년 새해설계 최홍선 국립광주박물관장

“도자문화관 개관을 계기로 2026년을 국립광주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최홍선 국립광주박물관장은 12일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한 해 성과와 올해 박물관 운영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최 관장은 “도자문화관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한 결과”라며 “박물관이 중장기적으로 지향해 온 방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도자문화관은 국립광주박물관이 2018년 특성화 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해온 전시관으로, 2023년 착공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연면적 7천137㎡,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한국 도자문화와 신안해저선 출수 도자 유산을 함께 조망하는 국가 대표 도자 전문 전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박물관은 연구·전시·교육 전반에서도 성과를 축적했다.

최 관장은 “호남고고학회와 공동으로 ‘선사·

축적된 연구 성과 바탕

국제 교류·대중 접근성 확대

전남도자기엑스포 준비 위한

학술·전시 기반 축적도

고대 한반도의 식량 소비’를 주제로 한 1차 프로젝트의 마지막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광주 신창동 유적의 문화경관’ 학술총서를 발간했다”며 “박동준 선생이 기증한 초의선사 유목 역사 ‘가련유사’와 ‘시문편’에 이어 지난해 ‘간찰편(상)’을 폐내며 정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를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역시 주요 성과로 꼽힌다.

고대 신라·가야의 장송의례에 사용된 상형도

기·토우장식 토기를 조명한 순회전 ‘영원한 여



정, 특별한 동행’을 비롯해 국립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국보순회전 기획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 분청사기’ 등 전시를 선보였다.

올해 박물관 운영의 핵심은 도자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확장이다.

최 관장은 “올해는 한국 도자문화는 물론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를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한국 도자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자료 축적과 신안 해저문화유산 국제 순회전 시를 위한 표준 모듈 구축, 도자문화 관련 국제

학술대회 개최, 현대 작가와의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문화 연구도 이어진다.

박물관은 호남지역 고대 도시 연구를 주제로 호남고고학회와 2차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1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관 지역문화실을 새롭게 단장해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광주 신창동 유적의 독널무덤에 대한 재보고서를 서울대학교박물관과 공동으로 발간하고, 박동준 선생이 기증한 초의선사 유목 번역 작업도 계속한다.

도자문화관은 2028년 전남세계도자·세라믹산업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최 관장은 “국립광주박물관은 9만여 점의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으며, 도자문화관 상설전시실에서 한국 도자 1천년의 역사와 신안해저선 출수 문화유산 등 7천여 점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 소장품을 바탕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전시와 교육, 현대 작가와의 교류로 성과를 확장해 학술적 가치와 대중적 접근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축적은 엑스포 추진의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에는 새로운 특별전도 예정돼 있다. 그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도기(陶器)’를 주제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전통 질그릇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준비 중”이라며 “도기의 다종다양한 기종과 문양, 미적·실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도기문화 전반을 꼭넓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관장은 “국립광주박물관은 과거의 유물을 전시·관리하는 곳을 넘어, 지역민과 관람객이 영감을 얻고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며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광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남극 과학탐험 강연, 시민 호응 속 마무리

국립광주과학관 ‘41회 필 사이언스’ 성료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이 남극을 무대로 한 과학탐험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누며 큰 호응 속에 강연을 마무리했다.

과학관은 지난 10일 이정구 광주각종과학관장을 초청해 ‘아라온호를 타고 남극 장보고 기지까지’를 주제로 제41회 필 사이언스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 이정구 관장은 지난해 12월 남극을 방문하며 경험한 과학 연구 현장을 중심으로, 흑독한 자연환경 속 연구 활동과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의 항해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냈다. 남극 장보고 기지를 둘러싼 연구 환경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명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강연자로 나선 이정구 관장은 서대문자연사 박물관과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을 역임한 과학문화 전문가로, 대중에게 친숙한 입담을 통해 ‘얼음 아래 숨겨진 남극의 비밀’을 흥미롭게 전달했다.

이번 강연은 사전 예약단계에서 조기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다수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강연에서는 과학탐험의 의미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 생태계의 변화가 시청각 자료와 함께 설명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남극 생활과 과학자의 진로에 대한 어린이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질문자에게는 이정구 관장의 저서 ‘찬란한 멸종’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의 ‘필 사이언스 강연’은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과학 이슈와 지식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과학문화 소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극장서 겨울 온기 담은 상영작 만나볼까

‘마이 선샤인’ ‘리틀 아멜리’ 등

2026년 병오년 새해, 광주극장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녹일 감도 높은 상영작들을 선보인다.

먼저, 지난 7월에는 오쿠야마 히로시 감독의 ‘마이 선샤인’이 개봉해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눈 내리는 훈카이도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말을 더듬는 소년 ‘타쿠야’와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소녀 ‘사쿠라’의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제77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며 영상미와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오는 14일에는 두 편의 영화가 나란히 스크



린에 오른다. 일본 영화계의 차세대 거장 미야케 쇼 감독의 장편 데뷔작 ‘굿 포 낫씽’(사진)이 국내 관객을 만난다. 16mm 필름으로 담아낸 흑백의 샷포로 설원을 배경으로, 어른이 되기 직

시·노래·유머 넘치는 ‘양석승 힐링콘서트’

오늘 더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

한국 감성 충전&웃음 치료 연구소 양석승(전 광주대 교수·사진) 소장은 13일 오후 2시 동구 소태동 더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제

45회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양석승 소장의 ‘고향부정’, ‘홍도야울지마리’로 시작된다.

이어 가수 고완심의 ‘성주풀이’, ‘님 오신 목포향’, 가수 백향의 ‘정말 좋았네’, ‘열두줄’ 무

전 방황하는 18살 세 청춘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같은 날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리틀 아멜리’는 아멜리 노튼브의 베스트셀러 ‘이토록 아름다운 세 살’을 원작으로 한다. 일본에서 태어난 벨기에 외교관의 딸 ‘아멜리’가 유모 ‘니시오’와 교감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가는 과정을 오색찬란한 판타지로 풀어낸 성장 영화다.

15일에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김보솔 감독의 ‘광장’이 개봉한다.

21일 개봉하는 올리버 락스 감독의 ‘시라트’는 감각적인 체험을 선사하는 로드무비다.

대가 펼쳐진다.
가수 덕향은 ‘처녀농군’과 ‘목포의 눈물’을,
가수 황명순은 ‘추억의 소야곡’과 ‘청춘고백’을
들려주며, 양 소장의 유
머퀴즈 및 상품 증정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지방
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 062)650-2000

▶ 구독문의: 062)650-2022